**연중 제5주일(2018년 2월 4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이번 주일은 저희 캠든 교구의 모든 성당들이 House of Charity 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 주간입니다. 지난 주 공지 사항 시간에도 잠깐 말씀 드렸었죠? House of Charity 는 우리 캠든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구의 자선 사업입니다.

 House of Charity 를 통해서 각 성당으로 부터 모아진 돈은 캠든 교구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결손 가정의 아이들,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과 가톨릭 학교 후원 등에 대부분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은퇴 사제나 수도자들, 신학생들의 학비 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캠든 교구 내의 복지 및 자선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세상에 무지 무지 가난한 곳이 참 많습니다. 가슴 아플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대부분 독점해 버리고, 서로 나누어 쓸 줄 모르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음식들이 쓰레기로 마구 버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빵 한조각 얻어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공평하게 서로 다 나누어 쓴다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쓰기에 충분한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온갖 욕심으로 다 독점해 버리고, 서로 나누어 쓰지 않으니까, 다 함께 쓰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세상이 옛날이랑 달라서 많이 각박해졌다고들 얘기하죠. 사람들 인심이 많이 사나워졌습니다. 서로 나눌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먹고 살만해 졌으면 가진 것을 좀 나누고 살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서로 나눌줄 아는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라도 좀 나누면서 삽시다.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잔뜩 가지고 살아 봤자,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집니다. 서로 나누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삶의 큰 감동이 됩니다. 이런 감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그 자유로움과 담대함. 그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멋진 인생 아닌가요? 그 자유로운 마음을, 그 너그럽고 거침없는 넓은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주일 헌금, 교무금, House of Charity 등 많이 내시는 분들 보면 부자라서, 남아 도니까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기 때문에 나눌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가진 것 다 바리 바리 싸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서로 더 많이 나누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 더 많이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후회없이, 아쉬움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각박하고 메마른 이 세상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House of Charity 올해 우리 성당의 목표액은 10,250불 입니다. 작년이랑 같습니다. 내가 내는 작은 정성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각 성당에서 신자들이 조금씩 내는 돈이 모여서, 이 사회가,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House of Charity, 주일 헌금, 교무금 등이 모여서 내 공동체가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조금씩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정성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십일조 말씀 드렸죠? 십일조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하느님께 받은 많은 축복과 은혜를 조금은 돌려 드린다는 의미에서, 가진 것의 10분의 1정도를 내면 좋겠다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꼭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형편대로 정성껏 기쁘게 바쳐드리는 것이 하느님께 바치는 ‘참된 봉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겠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참된 자선’입니다.

 서로 나누는 그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잡으라고. 잡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함께 손을 내밀자고.

 오늘 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결려서 아파 누워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부인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내려가고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병이 다 나아서 예수님 일행에게 시중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잡고 일어나라고. 잡고 일어나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리고... 오늘 복음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우리도 누군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십시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손을 내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희망을 갖고, 하느님 나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눔의 기적, 사랑의 기적입니다.